



○국내 최대규모 환경기술 전문 전시회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 (ENVEX 2008)』 성황리에 마쳐 ...

Report

- 총 24개국 254 업체가 참여하여 “LPG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약 2,500여 품목의 환경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17개국 80여명의 바이어 초청을 통하여 신규 수출계약 기대

국내 최대 규모 환경비즈니스 및 마케팅의 장인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8)』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총 24개국 254업체(국내 : 161, 국외 : 93)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13일 막을 내렸다.

환경부 산하 법정법인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환경부 후원으로 국가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판로확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국제환경기술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국제환경기술전은 환경전시회로는 유일하게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연속 국가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업체 및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등 17개국 80여명('07년도 : 9개국 61명)의 해외 바이어 및 공무원들이 초청되었으며, 이러한 바이어 초청을 포함한 전시회의 해외수출액이 매년 약 450억원(최근3년 평균치) 이상의 수출 계약 실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신규 판로개척 및 국가 환경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전시기간 중 참가업체들의 상담액과 계약액을 살펴보면 상담액이 3,900억원, 계약 추진액이 1,250억원에 이르러 전시회가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 및 제품판매에 커다란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바이어와 지자체 공무원이 대부분 참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환경관련 분야 종사자 48,533명이 전시장을 참관하였다.

또한 동 행사기간 중 국제환경기술세미나, 환경정책 설명회, 환경에너지 포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최신 환경기술정보와 국가 환경정책방향을 제공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참가국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 총 24개국 254업체 중 국내업체는 161개, 외국업체는 93개사가 참가를 하였다. 참고로 대륙별 참가를 보면 아시아는 일본, 북미는 미국, 유럽은 독일, 프랑스 등의 순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또한 출품물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질분야가 38.9%로 가장 많고, 측정/분석기분야 21.1%, 대기분야 9.5%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내년 제31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9 : 2009. 6. 9~12, 코엑스 태평양홀)은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협회 임직원은 더욱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제품홍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협회 주관으로 네델란드 아쿠아텍, 일본 오사카국제환경박람회, 중국 상해 환경전 등 주요 국제환경전에 한국관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 수처리 박람회('08. 10. 18~10. 22)에 참가하여 한국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환경무역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환경기술전시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envex.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1] 국가별 참가업체수

국가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만	벨기에	노르웨이	네델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EU	뉴질랜드	체코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업체수	254	161	20	19	18	4	3	3	3	3	2	2	2	2	1	1	1	1	1	1	1	1	1	1

[표2] 분야별 출품현황

총 업체수	수질분야		대기분야		폐기물분야		환경복원	측정/분석기분야	음식물처리분야	친환경에너지	환경서적	친환경상품	환경관련기관
	처리시스템	장비및부품	처리시스템	장비및부품	처리시스템	재활용							
254	28	68	10	28	10	9	1	50	7	3	4	15	21